

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수시/정시모집 교직적성 · 인성면접

[사범대학]

제시문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3년 15세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의식 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학생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업으로 교사가 으뜸에 꼽혔다. 부모가 바라는 직업으로는 1위 교사(25.3%)이고, 공무원(경찰, 장관 포함, 20.5%), 의사(7.2%)가 뒤를 이었다. 학생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업으로는 역시 교사(16.1%)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공무원(15.0%), 상업인(자영업, 유통업·12.5%), 기업가(7.6%), 의사(5.4%), 교수(2.7%) 등의 순이었다. 탄탄한 직업 안정성과 방학, 여기에 노후가 보장되는 연금혜택까지, 여러모로 교사의 인기는 식지 않을 분위기다. (…중략…)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이므로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교육과 학생에 대한 열정, 애정, 정직성, 리더십 등이 필요하며 원만한 수업진행을 위해 교사로서 정확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중략…) 선생님들은 같은 업무를 반복해야 한다. 신체적으로도 힘든 직업이다. 수업을 하려면 오랜 시간을 서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다리가 붓기도 하고, 분필가루를 마셔가면서 상당 시간 목을 혹사하는 고충도 있다. 국가 미래를 짊어질 후세들을 키운다는 사명감이 없으면 힘든 일이다.

(2006년 신문기사 발췌)

[물음 1]

위의 신문기사는 약 이십년 전인 2006년에 작성되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 기사 내용이 2023년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설명해 보세요.

[물음 2]

위의 기사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직업으로서 교사는 좋은 직업인지 본인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물음 3]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교사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범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본인의 동기와 이유를 말해 보세요.

제시문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의 지적 능력을 'IQ' 점수로 측정하는 지능검사는 편파적이고 제한된 방법으로 지능을 평가하며, 점수 자체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왔다. 기존 지능 개념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하워드 가드너는 1983년 '다중지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는 단일한 능력이 아니라 다수의 능력이 인간의 지능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들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동일하다고 제안했다. 가드너가 사람들의 다채로운 능력을 표현할 수단으로 제시한 여덟 가지 '지능' 범주는 다음과 같다.

- 언어 지능: 말하거나 쓰기에서 언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 논리-수학 지능: 숫자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논리적 규칙이나 관계에 관해 추론할 수 있는 능력
- 공간 지능: 시공간적 세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인식에 기반하여 변화를 가미할 수 있는 능력
- 신체-운동 지능: 자신의 신체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무언가를 만들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
- 음악 지능: 음악적 형식(예. 리듬, 음의 높낮이, 음색)을 인지하고 표현하며, 변형하거나 평가하는 능력
- 대인관계 지능: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감정과 행동을 해석하는 능력
- 자기성찰 지능: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능력
- 자연탐구 지능: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수많은 동식물 종을 알아보고 분류하는 능력

[물음 1]

중간고사를 본 후, 자신이 “머리가 안 좋은 것 같다”며 낮은 학업 의욕을 보이는 학생이 있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위 지문을 참고하여 어떻게 상담할지 이야기해보세요.

[물음 2]

학급 담임 교사로서 학생들의 다양한 지능이 존중받는 학급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한 가지 제안해보세요.

[물음 3]

학생들이 가드너가 제시한 다중지능의 여덟 가지 범주 중 두 가지 이상의 지능을 동시에 발휘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수학습 활동을 한 가지 제안해보세요.

제시문 [3]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K-컬처의 눈부신 약진, 스포츠 강국이라는 위상이 무색하게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기초예술체육교육은 갈수록 소외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입시를 위주로 돌아가는 교육 시스템 안에선 국어, 수학, 영어만이 제일이어서다. 내신은 물론 수능 성적에도 반영되지 않는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과목이 설 자리는 우리 교육 안에 없다. 예체능 과목들이 학생들의 인식에서 잊히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예체능 과목은 집중이수제를 통한 몰아듣기 파행이 지속된 지 오래다. 1학기에 음악을 들으면 2학기에는 들을 수 없는 식이다. 중요도가 중요도인지라 예산 배정도 적다. 일부 학교에선 턱없이 적은 예산에 재료 구매와 악기 관리 등에서 문제를 겪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전 A 고교에서 예체능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한 교사는 “수업 다양화를 통해 학생 참여율을 높이려 애쓰다”며 “편성된 예산이 많지 않아서 악기 조율이나 학습재료를 구입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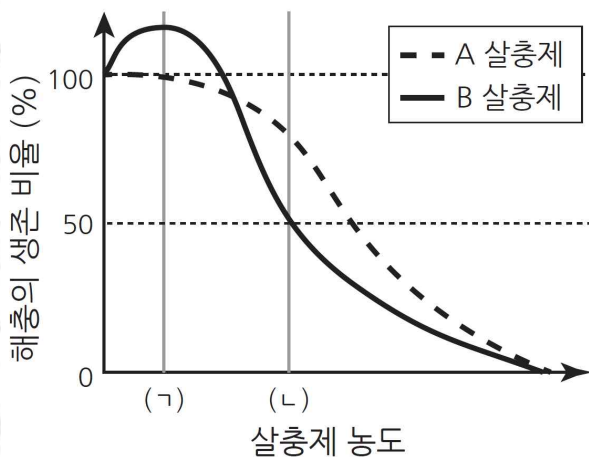
1. 예체능 과목이 교육현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2. 본인이 교사가 된다면 교육현장의 예체능 과목 소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3. 교육현장의 예체능 과목 소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 또는 국가 차원의 정책을 제안해 보세요.

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수시/정시모집 적성·인성면접
[수의과대학]

제시문 [1]

1. 현대 사회에서 수의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2. 지원자가 왜 꼭 수의사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 수의사가 되기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4. 학교생활기록부에 포함된 내용 중 특이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시문 [2]



[그림 1] A 살충제, B 살충제의 농도별 효과

새로 개발된 살충제 두 종류가 있다. 각 살충제의 농도별 살충 효과를 비교해 보았다.

- 1) 두 살충제의 효과를 비교해서 설명하십시오.
- 2) 농도 (ㄱ)에서 B 살충제는 어떤 효과를 일으켰나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3) 본 지원자라면 둘 중 어떤 살충제를 사용할 것인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제시문 [3]

일부 지자체가 취약계층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반려동물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증진시켜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의료지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원자는 위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시문 [4]

생물학적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과 활용법이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가 수의학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제시문 [5]

동물병원에서 임상수의사로 근무하는 지원자에게 초등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웅크리고 있던 새끼고양이를 데려왔고, 아파 보이니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지원자는 주인이 없는 동물로 판단하였고, 근무하는 병원의 지침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새끼고양이를 살펴본 지원자는 최근 자신이 공부 중인 질병 X와 유사한 임상증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질병 X는 매우 희귀하여 지원자도 실제 치료한 경험은 없으나, 높은 수술적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처치를 통한 회복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원자는 이 상황에서 새끼고양이를 치료하겠습니까?

제시문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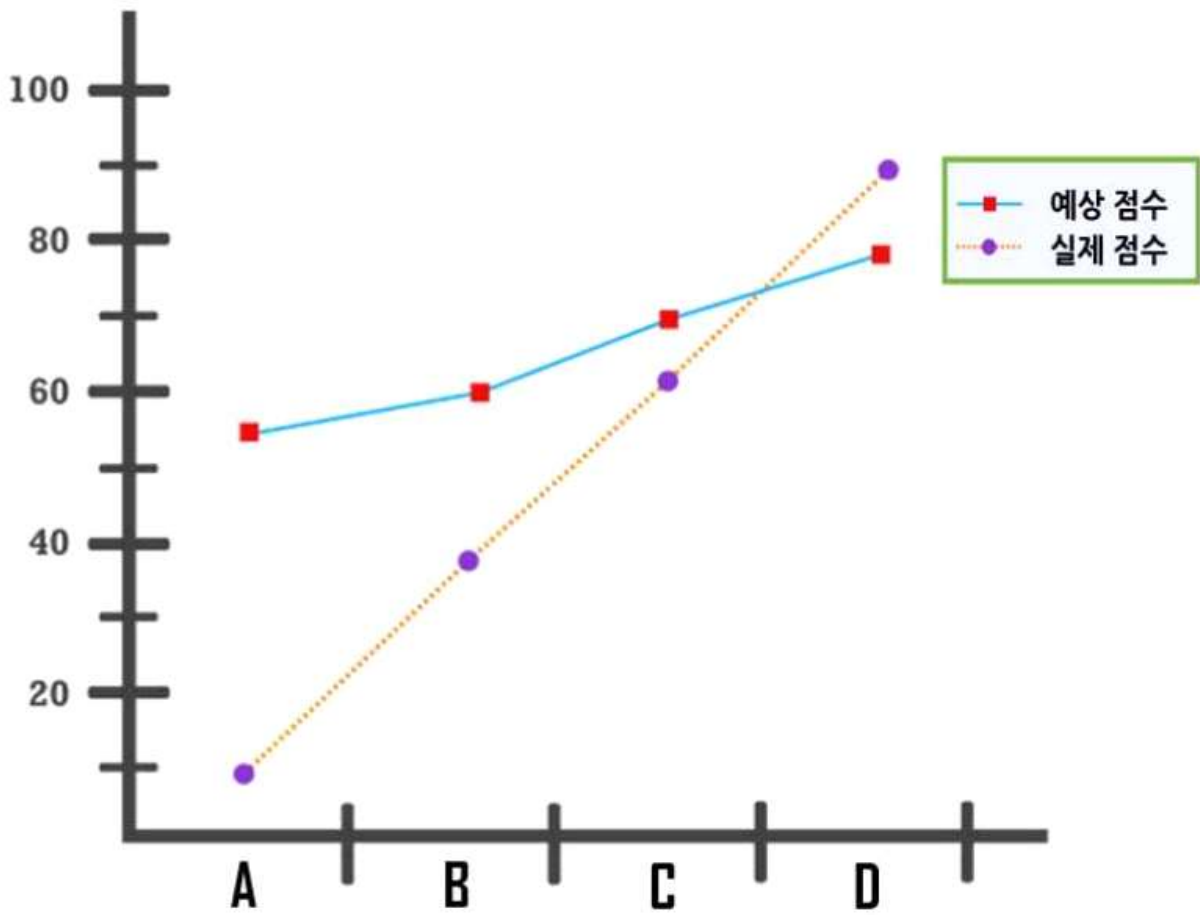
지원자는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2. 수의과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인 활동을 예로 설명하십시오.
3. 10년 후 지원자가 생각하는 수의사로서 본인의 모습에 대해 말해보시오.
4. 중·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수의과대학에서는 6년간 같은 동기들과 수업 및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게 되는데, 과정 중 인간관계의 갈등이 발생하면 본인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수시/정시모집 적성·인성면접
[의과대학]

제시문 [1]

다음은 자기평가(Self-Assessment)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그래프이다.



제시문 [2]

1795 년 2 월 새벽, 정조는 창덕궁을 출발하여 현재의 수원 화성(華城)으로 갈 예정이다. 이 행사는 정조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과 정조 즉위 20 주년을 기념한다. 행렬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1,800 명이며, 행사를 위해 동원할 인원은 6,000 여 명이다. 행사를 보기 위해 9,000 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신은 위의 행사에서 8 편의 기록화(記錄畵)*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입니다.

*기록화

실제로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나 사실을 오래도록 남기기 위하여 그린 그림



정조의 현릉원 행차(華城陵幸圖, 화성능행도), 김득신(金得臣, 1754-1822) 등,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대한민국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인 현릉원이 있는 수원의 화성에 가서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치렀을 때 행차와 잔치 모습을 그린 그림. 김홍도가 그린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에 기초하여 이를 병풍 형태로 만든 것임. 국왕의 친림, 호위하는 군사, 관료들과 구경나온 일반 백성에 이르는 여러 인물들을 그렸고, 시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함.

제시문 [3]

정현이와 선우는 지난주에 교내 수학 경시대회에서 공동 1 등을 하였다. 4 주 후에 전국 수학 경시대회가 열리는데 이 대회에는 학교마다 한 명의 학생만 출전할 수 있다. 담당 교사는 정현이와 선우에게 일주일 후에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 출전할 학생을 재시험을 통해 결정하자고 하였다. 정현이는 내일부터 중간고사 준비를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재시험으로 인해 공부 계획이 변경되어 아쉬웠다. 하지만 정현이는 중간고사 준비를 조금 미루고 일주일 후에 있을 재시험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제시문 [4]

전국시대(戰國時代) 위나라 관리인 방충이 적대국인 조나라로 위나라 태자(太子)를 호위하여 같이 인질로 가게 되었다.

위나라를 떠나기에 앞서 위왕(魏王)을 만나 방충이 말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와서 거리에 범이 나타났다고 하면 대왕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전혀 믿지 못하겠네.” 위왕이 대답했다.

방충은 또 말했다.

“두 사람이 거리에서 범이 나타났다고 하면 대왕께서는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음, 반신반의인데.”라고 위왕이 말했다.

방충은 다시 “그러면 세 사람이 거리에 범이 나타났다고 하면 대왕께서는 믿으시겠죠?”라고 묻자

“그야 물론 믿고 말고!” 위왕은 서슴없이 대답했다.

방충은 태자와 함께 조나라로 떠났다.

이후 태자는 위나라로 돌아왔지만 방충은 위나라에서 볼 수 없었다.

제시문 [5]

임금이 신하들과 정사를 보고 있다. 참찬 김점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하시는 정사는 마땅히 금상황제(今上皇帝)의 법도를 따라야 될 줄로 아옵니다.” 하니, 예조 판서 허조는 아뢰기를, “중국의 법은 본받을 것도 있고 본받지 못할 것도 있습니다.” 하였다.

김점은 아뢰기를, “신은 황제가 친히 죄수를 끌어내어 자상히 심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하께서도 본받아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허조는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관을 두어 직무를 분담시킴으로써 각기 맡은 바가 있사운데, 만약 임금이 친히 죄수를 결제하고 대소를 가리지 않는다면, 관을 두어서 무엇하오리까.” 하였다. 김점은 아뢰기를, “온갖 정사를 전하께서 친히 통찰하시는 것이 당연하옵고 신하에게 맡기시는 것은 부당하옵니다.” 하니, 허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께서 대신을 선택하여 육조의 장을 삼으신 이상, 책임을 지워 성취토록 하실 것이 마땅하며, 몸소 자잘한 일에 관여하여 신하의 할 일까지 하시려고 하서는 아니 됩니다.” 하였다.

제시문 [6]

(가)



예술가 데미안 허스트는 나비 수천여 마리의 몸통을 제거하고 날개만 사용하여 작품을 만들었다.

(나)



예술가 마르코 에바리스티는 트라폴트 미술관에서 'Helena'라는 작품을 전시했다. 이 작품은 물이 든 10 개의 믹서기 안에 살아 있는 금붕어를 넣어 놓고, 관람객이 믹서기의 작동 버튼을 자유롭게 누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제시문 [7]

선천성 질환을 출생 전에 높은 확률로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 기술의 적용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국제 회의가 개최되었다.

제시문 [8]

명백한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평등은 다소 복잡한 개념이고, 많은 개인들이 도달할 수 없는 도덕적 수준을 요구한다. 사람들은 차라리 인간의 다양성을 부인하고 평등을 동일성으로 대체해 버린다. 또는 단지 형태학적 특성만이 유전자에 의해 지배되고 마음의 나머지 특성들은 '조건화'나 다른 비유전적 요소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인류는 생물의 세계에서 예외적인 존재라고 주장한다. 그런 사람들은 쌍둥이 연구가 보여 주는 결과와 동물의 비형태학적 특성을 유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편리에 따라 무시해 버린다. 그렇게 명백히 잘못된 전제를 기초로 한 이데올로기는 재앙으로 직결될 수 있다. 인간의 평등을 옹호하기 위해 모든 인간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동일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자마자 평등에 대한 지지도 똑같이 사라진다.

제시문 [9]

나는 공동주택 2 층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3 학년 학생이다. 재작년에 이사 온 윗집과는 친분이 없고 가끔 입주변에서 만나면 목례(目禮)를 하는 사이이다. 윗집이 이사 온 후부터 간혹 밤 10 시를 넘어서까지 피아노 연주 소리가 들렸다. 늦은 시간에 들리는 피아노 소리가 불편하였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작년에 한번 피아노 소리가 크게 들려서 관리실을 통해 소음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관리실은 윗집에서 “자녀 두 명이 피아노 전공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조금만 이해해 달라”라고 했다며 의견을 전달했다.

올해 초부터는 밤 10 시를 넘어서까지 피아노를 연습하는 소리가 빈번하게 들렸다. 우리 집은 관리실을 통해 항의하였고 윗집에서는 “그동안 소리에 대해 별말 없었으면서 왜 이렇게 유난스럽냐, 우리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 처리를 했고 노력했다. 공동주택에 살면서 이 정도는 감수하고 지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반문했다고 한다. 나는 그동안 윗집 층간 소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를 했다. 우리 집은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소음 측정기로 일주일간 매일 밤 10 시부터 5 분 동안 층간 소음을 측정했고 아래 기록을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윗집도 소송에 맞대응하겠다고 한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41 dB	20 dB	39 dB	40 dB	15 dB	30 dB	10 dB

※ 층간 소음 허용 기준은 주간(06:00~22:00) 45 dB 이하, 야간(22:00~06:00) 40 dB 이하임

※ dB 수준을 다음과 같이 가정함

20 dB: 조용한 독서실 소리, 40 dB: 일반 대화 소리

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수시/정시모집 적성·인성면접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학사·전문석사 통합과정]

제시문 [1]

50 세인 A 는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서 25 세부터 공장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도와 일해 왔고, 10 년 전 이 공장을 이어받아 운영 중이다. 해당 공장은 자동차 업계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는 중소기업으로 100 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에서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이 이뤄지면서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그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최근 불가피하게 공장 직원 50 명을 정리하고 하게 되었다.

제시문 [2]

우리는 소셜미디어 세계에 살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의 잠재의식에 영향력을 행사해, 그들의 행동과 욕망, 정체성, 관심을 지배하도록 설계됐다. 그런 외부 환경이 당신의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을 수 있는 힘을 키우면, 외부 환경이 당신을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갈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바라는 미래의 내가 되는 삶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지 선택할 수 있다. 그 반응에 자신의 발전과 자유가 달려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을 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 어떻게 행동하고 존재할 것인지, 무엇을 보고 생각할 것인지, 새롭고 더 나은 방법에 자신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라.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든 앞으로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당신은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틀림없이 현재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대답은 현재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 지금 알고 있는 지식에 갇히지 말고 상상력을 발휘해보라. 현재나 과거와 상관없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현재 상황에 따라 목표를 정하는 것을 피했으면 한다. 그보다 당신이 원하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라.

‘퓨처셀프’에서 발췌

제시문 [3]

다음은 서울대학교 치의학교육혁신센터에서 제시한 치의학대학원 교육목표로서의 역량이다.

- 임상역량
- 의사소통 능력
- 진료관리 및 경영
- 검사·진단·치료계획
- 지식기반·비판적 사고
- 의료인으로서 직업정신

제시문 [4]

(질문 1) 치의학대학원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치과의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질문 3) 지원자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치과의사의 모습은?

(질문 4) 치과의사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것들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 5) 지원자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목표는? (졸업 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